

# “일단 혁신위 활동 지켜보자”...9월 탈당 등 행동개시 예고

## 새정치 비주류·호남의원 대규모 ‘광주 회동’

### 비상대책위 구성·신당 창당 필요 등 격한 발언 쏟아져 李원내대표 당내 의견 전달...사실상 문대표 퇴진 언급

“문재인 대표체제로는 내년 총선에 희망이 없다.”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 하는 9월까지 지켜봐야 한다.”

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의원 12명은 8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진 ‘광주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긴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우선 혁신위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호남발(發) 신당 창당 등 호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야권 내에서 다양한 진로가 모색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김상곤 혁신안’에 당 지도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의미가 풀이된다.

반면, 비주류 측이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반(反) 혁신적’이라며 대립각을 세우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혁신위 활동 종료시점을 비주류의 행동개시 시점, 즉 전면적의 시작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떤 이야기 오갔나=이날 회동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박지원·장병완 의원 등 중진들이 대화를 리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퇴진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물론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격한 발언까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도 문 대표 퇴진 이후 대선 후보 내지 계파 수장 연합체 성격의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문 대표 퇴진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 퇴진론은 일부 의원들의 문 대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성토와 문 대표

에 대한 호남 민심의 ‘반감’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지원(목포) 의원은 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심은 문재인 대표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당 창당이나 분당은 아직 명분이 충분치 않다”면서 “혁신위의 활동이 마감되는 9월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주승용(여수 울) 의원도 “지금 당장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혁신위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면서 “결국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문 대표가 살신성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는 압박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해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문 대표의 리더십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다”면서 “하지만, 혁신위가 활동하는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일단 이달까지는 혁신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되, 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실어온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광주 민심은 문재인 체제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이다”면서 “광주 민심은 대안으로 신당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 vs 비주류 계파 갈등 다시 수면위로=새정치민주연합의 해묵은 주류·비주류 계파갈등이 이번 광주·전남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의 대규모 회동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일 혁신안의 당무위 의결, 탕평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내 영풍문고에서 자신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를 열고 있다. 사인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을 앞세운 당직인사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비주류의 불만이 이번 ‘광주 회동’을 통해 여과없이 터져나오면서 또다시 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광주 회동’에는 광주·전남권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병호·최원식 의원 등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까지 합류했다는 점에서 ‘문 대표 퇴진론’이 다른 지역의 비주류 의원들로 확산되면서 향후 주류와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문 대표로 대표되는 주류와 친노측은 비주류의 이런 주장이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공천혁명’ ‘쇄신공천’ 등 내년 총선 때 대대적인 물갈이 필요성이 거론되

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 측이 공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여의치 않으면 탈당, 신당 출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위의 활동이 마감되는 9월 초 이후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는 혁신위 제안을 당론화함으로써 당을 안정화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비주류는 일단 혁신위 활동을 지켜본 뒤 성과가 미흡하다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혁신위가 10일 의원총회에서 이견 수렴을 위해 공개하는 공천혁신 초안이 주류·비주류 간 공천 갈등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영선 의원 ‘저자 사인회’ 대성황

### 광주 유스퀘어 영풍문고 100m 장사진 북새통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의 저자 사인회가 지난 8일 광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후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내 1층 영풍문고에서 열린 사인회는 당원과 시민이 100여m의 줄을 설 만큼 장사진을 쳤다. 천정배·우윤근·김영권 당원과 시민이 100여m의 줄을 설 만큼 장사진을 쳤다. 천정배·우윤근·김영권 당원과 시민이 100여m의 줄을 설 만큼 장사진을 쳤다. 천정배·우윤근·김영권 당원과 시민이 100여m의 줄을 설 만큼 장사진을 쳤다.

사인회를 받은 시민 김경수(46)씨는 “어느 국회의원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박영선 의원이 저자, 정치인 시절 만난 국내외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궁금했다”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보고자 책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어떤 정치적 계기로 내는 책이 아니다”며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 상에 대해 저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많은 독자와 생

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사인회를 한 데 대해 “광주가 민주화의 심장이라서 마음이 설레고, 광주시민이 저를 맞이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더욱 잘해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대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전 총리 등 그가 겪은 국내외 지도자 14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표는 야권의 신당 창당론을 묻는 질문에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또 그만큼 새정치연합이 강한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이 과거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한 야당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일 것”이라고 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정치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10% 청년에 할당하자”

### 광역 20%, 기초의원 30% ‘1·2·3 할당제’ 도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

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당이 차세대 리더 학교를 운영

해 청년 리더를 발굴·양성하고, 전국대학생위원회를 지역위원회에서 분리해 학교별로 독립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청년정책협의회를 열어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국민위원회로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온라인 청년 담벼락’ 구축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정당 국고보조금 3% 청

년 할당, 청년 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하고 청년발전기 본법이나 청년정치 발전법 등의 입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은 당의 미래”라며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2회 ‘시인이 도다’ 가을편 빛창공모전

여러분의 감성을 담아주세요. 밝은광주안과가 제2회 ‘시인이 도다’ 빛창공모전 가을편을 개최합니다. 빛창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안과 눈모양발달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감성을 듬뿍 담은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 기간 : 2015년 7월 24일(금) ~ 8월 13일(목)  
발표일 : 2015년 8월 17일(월) 오전 10시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주제 | 가을, 단풍, 여행, 사랑 등 자유주제

접수방법 | 밝은광주안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best-lasik.co.kr)

시상내용 | 대상 (1편) : 문화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 (1편) :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상 (2편) : 문화상품권 10만원  
佳作 (10편) : 문화상품권 3만원

문의  
밝은광주안과 기획실 ☎(062-351-9938)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